

시민건강분과 커뮤니티케어TFT 1차회의

2019. 3. 6.(수) 16:00, 장안구보건소

김혜경, 송명은, 우태옥, 김혜란, 윤희숙, 조윤희, 박연옥, 임복희

○커뮤니티케어를 하기 위한 준비

- 시민이 가려운 곳을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접근 필요
- 민관협력을 통한 고민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함. (적극적 의견수렴과정)
- 선진국의 사례, 정책이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?
- 정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?
- \* 타시군 사례 함께 검토 필요 (서울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등)
- 동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필요
- 장기요양(간호사 의료처치 문제), 의료급여, 가정간호,  
: 의료특례법, 의료법,

○ 커뮤니티케어 현황과 과제 세미나

- 장기요양 : 현장의 구체적 문제, 사례, 대안 (송명은, 박연옥, 조윤희)
- 의료급여 :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어려움 (사회복지과 의료급여팀 협의-TFT에 참여)
- 병의원 : 퇴원계획요약지 지역사회 연계 필요, 방문진료 시스템 부재. 의료수가,
- 가정간호 : 가정내 진료시 위험에 대처 체계, 방안
- 보건소
- \* 외국의 경우, 주요 질병 관리 매뉴얼 있음. 일본 방문진료 의원 활성화되어 있음. (보건복지부 역할)

○ 결론

- 1) 장기요양 현황 듣기
- 2) 의료급여 의견 수렴
- 3) 건강보험, 심평원
- 4) 보건소
- 5) 영역간(보건복지주거 등)연계